

2011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를 다녀와서

강소선_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1. 참가하며

2011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먼 거리에 있는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에서 개최되었다. 비행시간이 길어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하였지만 중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낯선 섬나라에 대한 궁금증으로 힘든 여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2011 대회 포스터를 장식하고 있는 올드 산후안의 엘모로 요새 사진은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더욱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2011 세계 도서관정보대회 포스터〉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여 조직한 41명의 한국 참가단은 8월 12일 오전에 출발하여 꼬박 21시간의 여정 후에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 공항에 도착하였다. 전문도서관협의회 소속 기관에서는 나를 포함하여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3명이 참가하였다. 거리가 멀고 비행시간의 부담이 있어서인지 예년에 비해 참가자 수가 많지 않았지만 도서관협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관중을 대



표하여 참가한 관장님들, 사서 선생님들의 분위기는 힘든 여정 후에도 화기애애하고 의욕에 넘치는 모습이였다.

이번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총 8일간 개최되었지만 실제로 주제별 발표와 토론, 전시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5일 간이다. 개회식 이전 3일은 IFLA의 각종 집행위원회 실무회의와 대회 참가등록 및 본 행사 이전의 모임들이 진행되었고 우리 참가단은 개회식 전날인 8월 13일 대회 참가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에 참가하였다. 대회 개최지는 푸에르토리코 수도인 산후안의 컨벤션센터였는데,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설과 규모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었으며 여러 가지 준비상황이나 교통편, 자원봉사자들의 규모와 친절함 등도 매우 훌륭하였다. 다만, 중남미의 다소 뜨거운 날씨 때문인지 냉방이 다소 지나칠 정도여서 개인적으로 체온조절에 애를 먹어야 했다.



〈대회 개최 장소인 푸에르토리코 컨벤션센터 전경〉

도착 다음날이자 개회식 전날인 8월 13일에는 대회 참가등록과 함께 각 언어권별 참가자 모임이 있었다. 우리도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여 한국어참가자모임을 개최하였는데 50여 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참석하여 대회 기간 동안의 활동상황 및 참가자들 간의 소개와 간략

한 발표를 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가도서관정보정책 특별관심그룹’ 회의를 주관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장이 한국의 도서관 발전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도 함께 공유하였다. 한국어참가자 모임이 끝나갈 무렵 엘렌 타이스 IFLA 회장이 방문하여 간략한 인사를 하였고 사진촬영도 함께 하였다.



〈한국어 참가자 모임을 마치고〉

8월 14일 일요일에는 개회식이 있었다. IFLA 발표에 의하면 150여 개국 2,2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커다란 메인 회의장이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로 가득 메워졌고 개회식의 분위기는 뜨거웠다.



〈개회식장에서의 기념촬영〉

2011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도서관, 그 이상의 도서관(Libraries beyond Libraries: Integration, Innovation and Information for All)’이라는 주제를 채택하였다. 도서관을 넘어서는 도서관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 것인가란 고민과 직업적인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유발하게 만드는 주제인 것 같았고, 이번 대회 발표내용이 메인 주제를 얼마나 반영하고 어떻게 전개해나갈지 궁금했다.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습의 앞서는 도서관의 모습을 상상하며 총 200여 개가 넘는 세션을 뒤적여 들어야 할 발표주제를 선정하였다.

2. 흥미로웠던 주제발표들

이번 대회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포함하여 총 218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165개의 포스터가 전시되어 모든 분야의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 많은 주제발표를 다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와 밀접한 세션이나 개인적인 관심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였고 오전과 오후 각각 1개씩의 세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디지털 도서관, 전자책, 모바일 등 역시 수많은 주제발표들이 정보기술과 디지털 혁명과 관련한 미래 도서관의 모습에 관한 것이었고, 지역사회 및 사람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모습에 대한 발표도 많았다. 200여개가 넘는 세션에서 수백 개의 주제가 발표되는 거대한 대회장의 모습은 채택 주제와 같이 우리 도서관이 이미 도서관, 그 이상의 도서관의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회장 전경〉

필자는 개인적인 관심과 전문도서관의 영역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세션에 참가하였는데 발표내용이 다양하고 세계 각국의 사례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여 들었던 주요 발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관심: 다문화 인구를 위한 정보활용능력의 중요성 (세션 94)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literacy for multicultural populations: needs, strategies, programmes, and the role of libraries)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책과 여러 가지 제도가 개발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우리 도서관의 역할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에 매우 관심이 가는 주제였다. 이 세션에서는 총 8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은 터키에서 발표한 '다문화사회에서 정보활용능력을 통한 사회통합 강화방안' 이었다. 이민자, 소수민족 등 여러 다양한 구성원을 통합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적 도구로서의 도서관의 중요성과 함께 터키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욕구와 필요성을 조사하고 이를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인구의 정보욕구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공공 도서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도서관 주도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했으면 한다. 이와 함께 이미 IFLA에서는 2008년에 '다문화 도서관 선언'(The IFLA Multicultural Library Manifesto)을 제정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보서비스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엔 새롭게 알게 된 것도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다. 진정 도서관을 넘어서는 도서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두 번째 관심: 새로운 책(전자책)은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보장해줄 것인가?
(세션 103)

(Can the new book economy guarantee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전자책과 상호대차(세션 202)

(e-Books and interlibrary loan—Document Delivery and Resource Sharing Section)

본격적인 전자책 시대에 인쇄 책 대신 전자책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세션은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빌려주는 여러 가지 모델과 관련한 라이선싱, 출판사와의 계약 조건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특히 주제에 대한 요약 발표가 있고 참가자들 사이의 자유토론이 이어져 딱딱한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형식에서 볼 수 없었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표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접하면서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였다. 전자책 이용환경은 관련 기술과 매체의 발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아졌지만 기술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는 또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어 좀 더 많은 논의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 세 번째 관심: 비전 2020: 혁신적인 정책, 서비스, 도구(세션 122)

(Vision 2020: innovative policies, services and tools —Management and Marketing Section with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이 세션은 특히 대학과 연구도서관에서의 미래 비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어느 주제보다 관심이 있었다. 총 7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대부분 유비쿼터스, 모바일, 마케팅과 같은 분야의 미래 도서관의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전과 변화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독일의 바바리안 주립 도서관(Bavarian State Library)에서 발표한 미래의 인터넷을 위한 혁신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발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많아 흥미로웠다. 일반적인 도서관의 정보인 모바일 OPAC, 모바일 웹사이트 외에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원들을 선정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슬람 문화와 관련한 희귀 필사본과 같은 보물자료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 2011년부터 스마트폰을 위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Augmented reality application)을 개발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다소 생소한 기술이라 명확하게 와 닿지는 않았지만 최신 기술을 도서관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도서관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이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따라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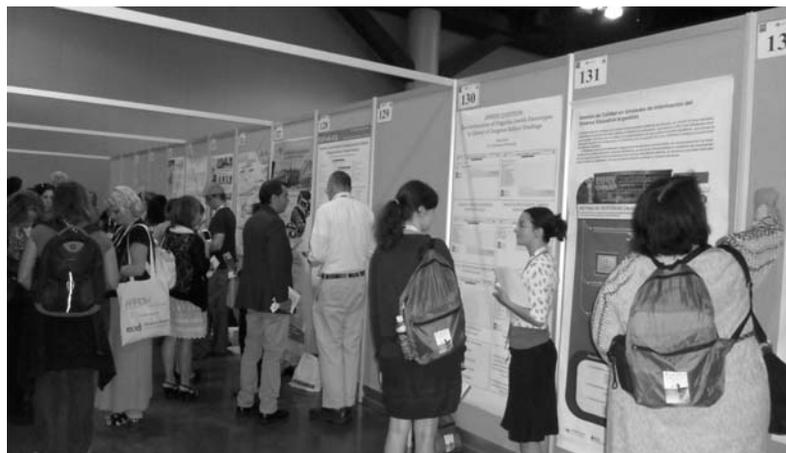
그 외에도 영국의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University of Strathclyde)의 발표(As for the future, your task is not to foresee it, but to enable it)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을 개발하지 않으면 도서관이 퇴화할 수 있고 도서관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인 니치(niche, 특정시장분야)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의 방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하였다.

▶ 네 번째 관심: (세션 185) 대학 및 연구도서관에서의 핫 토픽

(Hot topics i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이 세션에서는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중심으로 최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그 중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관계 및 도서관에서의 여러 가지 인사관리 문제를 다룬 발표(Between baby boomer and diginative generation—challenges in the personnel management of libraries)가 매우 흥미로웠다. 이 문제는 도서관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볼거질 수 있는 문제지만 특히 정보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직업인 도서관에서의 세대 간 현상은 보다 관심이 많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정보 마인드의 차이로 인한 업무상의 의견충돌도 있을 수 있고, 업무 처리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분석해보아야 할 주제인 것 같았다. 이 외에도 모바일 인터넷에 관한 발표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 발표한 디지털 콘텐츠와 유비쿼터스에 관한 발표도 요즘 우리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주었다.

▶ 다섯 번째 관심: 포스터 세션(세션 13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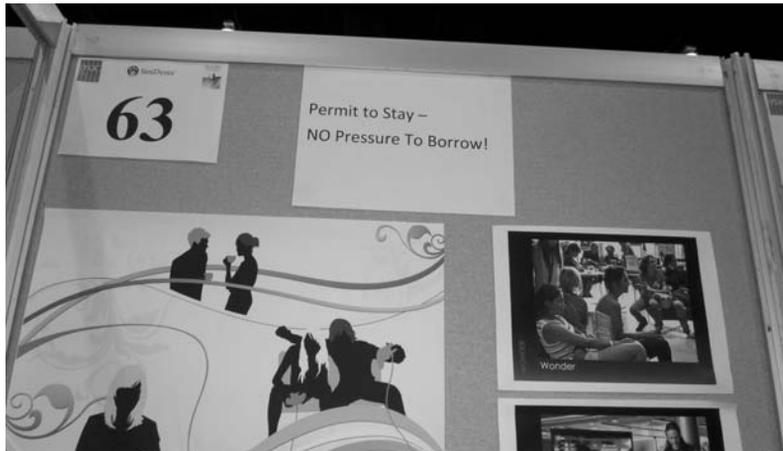


〈포스터 세션장의 모습〉

이번 대회 포스터 세션에는 총 165개의 포스터가 전시 발표되었는데, 2010년 대회에 우리나라에서 6명의 발표자가 참가한 것에 비해 올해 대회의 우리나라 참가자는 한명도 없었다. 반면에 중국인 참가자는 7명이나 되었고 개최지와 인접해서인지 쿠바인 참가자가 상당수 있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표자가 많았는데 단순히 언어적인 차원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았다.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언어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아시아 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토론과 발표문화가 교육시스템을 통해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사람들의 정서가 개방적이고 활발한 면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발표자가 많았으면 하고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에서도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포스터 세션의 발표는 큰 포스터 한 장에 방대한 규모의 사업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발표한 포스터부터 담론적인 질문과 간략한 개념정의 혹은 몇 가지 아이디어만 조출하게 제시한 포스터까지 그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였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았던 포스터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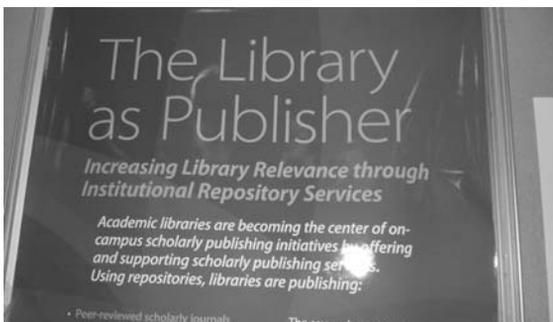
☆ 도서관에 머물러 있게 하자(Permit to Stay -No Pressure to Borrow)



〈포스터 세션장의 모습〉

이 포스터는 말 그대로 도서관을 이용자들이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단순한 발상을 재미있게 표현한 포스터인데 언뜻 보기에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볼수록 도서관의 현실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도서관이 음악과 차와 볼거리가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게 도서관인가 휴게실인가란 보수적인 생각과 변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야말로 도서관을 넘어서는 도서관이지 않을까란 혁신적인 생각사이에서 웃음 짓게 만드는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다.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도 최근 수많은 북카페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결과에 대하여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분석해봐야 할 과제인 것 같다.

☆ 발행자로서의 도서관 (The library as publisher)



〈포스터 세션장의 모습〉

필자가 개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저널 발행 및 출판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서인지 유난히 관심이 가는 포스터였는데, 대학 및 연구 도서관에서 발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과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관 리포지터리 운영에 관한 내용이었다. 필자의 경험으로 학술저널의 발행과 관리 배포를 도서관 및 사서만큼 잘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없다고 생각한다. 학술저널과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 대학 및 연구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 그 밖의 재미있는 포스터들

〈Creating a culture of innovation and mobility with an iPad for all librarians and staff〉

미국의 콜비 대학(Colby College) 도서관에서는 혁신과 기술문화 창조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2011년 봄에 모든 도서관 직원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하고 6개월 동안의 시험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즉, 전 직원의 아이패드 사용이 도서관 직원들의 업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도서관 서비스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잠재력을 보여주는지,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의 사용이 도서관 장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도 과감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실험적인 프로젝트이지 않을까?

〈Can Apple stores inspire library space design?〉

이 포스터는 도서관의 공간 디자인을 위한 참조 모델로서 전통적으로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서점 대신 다양하고 놀라운 변신과 디자인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애플 스토어를 제시하였다. 서점처럼 가지런히 책을 배열하고 열람석을 설치하던 전통적인 배치를 재미있고 역동적이며 시선을 사로잡는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애플스토어를 한번 방문해보라고 권유하는 포스터이다.

〈"Digital Natives" and Libraries: Room for improvement〉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 세대와 도서관 사이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소박한 견해를 피력한 포스터이다. 디지털 세대와 도서관의 특성을 너무 형식적으로 일반화한 내용도 있었지만 예리한 관찰도 엿보이는 창의적인 내용도 많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세대는 그들의 학습을 위해서 구글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단순한 도구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사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자원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은 우리가 이용자의 특성을 너무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발견을 주는 분석이었다.

3. 마치며

긴 여정 후에 도착한 푸에르토리코는 섬으로 이루어진 미국 자치령으로서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을 보여주었다. 수도인 산후안을 둘러싸고 있는 엘모로 요새는 1539년에 건립되기 시작한 거대한 규모의 군사적 방어벽으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유산이다. 푸에르토리코의 전체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오래된 요새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볼만한 세계문화유산이었다.

또한, 대회 중간에 열렸던 문화의 밤 행사에서는 남미 특유의 열정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흥겨운 파티를 즐길 수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춤과 노래를 지칠 줄 모르게 즐기는 대회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며 늘 자신보다는 이용자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사서들의 모습 어디에 이런 열정과 흥이 숨겨져 있었는지 새삼 놀라웠다. 아마도 그런 열정에서 헌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도 오랜만에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댄스를 즐겼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매년 개최되는 도서관계의 글로벌 행사로서 개최규모와 내용면에서 어떤 분야 못지않은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3천 명에서 5천 명의 참가자가 일주일 이상을 함께 모여 동일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도서관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번에 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참가단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다. 모든 참가자가 느낀 점일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대회를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내의 전국도서관대회의 결과를 IFLA 대회에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세계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을 선정하여 IFLA 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서관협회가 지원하는 것이다. 아니면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차원에서라도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한 훌륭한 내용을 선정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IFLA대회는 도서관계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세계 각국의 홍보전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느낀 점은 대회참여가 단순한 방문 이상이 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회 참가 전에 관심 있는 국가의 단체나 도서관과의 교류 모임을 기획해서 대회장에서 서로 만나 자유롭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IFLA대회는 주제발표의 장이기도 하지만 교류와 협력의 장이기 때문이다. 도서관협회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차원에서라도 세계 각국의 전문도서관 협의회와의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 회의 개최지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 핀란드의 헬싱키라고 한다. 역시 올 해 만큼이나 먼 여정이지만 많은 도서관인들이 참여하여 멋진 주제로 함께 어울리는 훌륭한 행사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